



기고
 • 보험범죄, 소리없는 대재앙

필름
 류상만
 한국보훈신문 기자

보험범죄, 소리없는 대재앙

1. 머리말

1975년 우리나라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언니, 형부, 조카를 살인하고 시동생마저 우유로 독살한 후 총 147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박분례 사건' 때문이다. 그 이후 보험범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험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천인 가족마저도 돈을 얻기 위해 살해하는 끔찍한 도구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보험범죄를 소리없는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이라고 부른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 보험범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보험범죄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살인, 방화, 보험관련 문서 위조 등 일체의 범법행위를 의미한다.” “보험범죄는 보험의 도덕적 악용으로 인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압적 존재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되어왔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이 가지고 있는 사행 계약성에 기인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으며, 그 우연한 위험이 현실화될 때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사행 계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치, 로또복권의 당첨이 한순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듯이, 보험범죄를 통해 한 밑천 잡아보겠다는 천만자본주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보험범죄 발생현황

가. 생·손보사별 보험사기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
| | 보험금액 | 증감률 | 보험금액 | 증감률 | 보험금액 | 증감률 | 보험금액 | 증감률 | 보험금액 | 증감률 |
| 생명보험 관련금액 | 7,619 (12.6) | 26,492 (20.5) | 247.7 | 34,751 (19.3) | 31.2 | 61,242 (24.6) | 76.2 | 39,536 (12.8) | △35.4 | |
| 손해보험 관련금액 | 52,986 (87.4) | 102,547 (79.5) | 93.5 | 145,447 (80.7) | 41.8 | 187,752 (75.4) | 29.1 | 269,077 (87.2) | 43.3 | |
| 합계 | 60,605 | 129,039 | 112.9 | 180,198 | 39.6 | 248,995 | 38.2 | 308,613 | 23.9 | |

나. 관련금액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 고의 보험사고 | 10,648 (17.6) | 32,277 (25.0) | 203.1 | 29,849 (16.6) | △7.5 | 36,045 (14.5) | 20.8 | 38,786 (12.6) | 7.6 | |
| 보험사고 가공 | 8,020 (13.2) | 15,984 (12.3) | 98.2 | 29,337 (16.3) | 84.6 | 35,371 (14.2) | 20.6 | 67,730 (21.9) | 91.5 | |
| 사고후 피해과장 | 10,462 (17.3) | 29,254 (9.5) | 179.6 | 41,186 (22.9) | 40.8 | 79,799 (32.0) | 93.8 | 56,882 (18.4) | △28.7 | |
| 사고후 보험가입 | 4,872 (8.0) | 12,294 (9.5) | 152.3 | 18,285 (10.1) | 48.7 | 20,303 (9.5) | 11.0 | 64,041 (20.) | 215.4 | |
| 운전자 바꿔치기 | 13,593 (22.4) | 20,432 (15.8) | 50.3 | 28,224 (15.4) | 38.1 | 42,195 (16.9) | 49.5 | 38,570 (12.5) | △8.6 | |
| 사고차량 바꿔치기 | 3,674 (6.1) | 5,080 (3.9) | 38.3 | 6,344 (3.5) | 24.9 | 8,310 (3.3) | 31.0 | 13,501 (4.4) | 62.5 | |
| 기 타 | 9,336 (15.4) | 13,808 (10.7) | 47.9 | 26,973 (15.0) | 95.3 | 26,970 (10.8) | — | 29,103 (9.4) | 7.9 | |
| 합계 | 60,605 | 129,039 | 112.9 | 180,198 | 39.6 | 248,995 | 38.2 | 308,613 | 23.9 | |

(출처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의 보험대국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 총생산규모로 세계 13위(2007년 기준)이므로, 경제수준에 비해 보험 산업의 크기는 훨씬 크다. 그만큼 경제규모에 대비해서 보험 산업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적발건수 및 관련금액은 해마다 30~40%정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비율은 현재 지급 보험금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2007년 현재 3조 8백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3. 보험범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문제는 보험범죄가 증가할수록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이다.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 구성 원리인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만 근절되도 생명보험은 3.8%, 손해보험 가입자는 6.1% 정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역으로 보면 현재 보험료는 이런 보험범죄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그만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보험범죄로 한 가구당 20만 원이 넘는 돈이 새고 있는 셈이다.

둘째,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문제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05년 2만 3천여 건에서 2006년 3만 4천여 건으로 46%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는 지난 2005년 198건에서 2006년 451건으로 127% 증가했다. 10대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을 악용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사회적 양극화, 실업률 증가, 윤리의식 저하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10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보험범죄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우선 실행의 용이성에서 문제점을 찾

을 수 있다.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건물 방화, 지인끼리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를 가장한 허위사고신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보험당국은 그 고의성을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범죄에 대한 관대한 국민의식 또한 이런 범죄가 늘어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규 마련과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범죄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사회파탄 경제사범으로 인식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보험범죄를 자금조달 사기 및 금융어음 사기 등과 같은 중요 경제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범죄에 대해 동정론적인 시각을 일부 갖고 있다. 방화를 할 경우, 오죽 살기 힘들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하면서 오히려 동정하는 관대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살인 등 인명살상 이외의 보험범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국민의식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의 보험관련 범죄는 고도화, 지능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업계는 전문 보험 사기꾼들의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보험범죄를 적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험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 역시 그리 높지 않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법처리 조사 대상자 중 구속자 비율이 2000년 45.5%에서 2007년 24.7%로 크게 감소했다. 사법처리 결과는 집행유예(46.9%)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벌금형(28.4%), 징역형(24.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 관련 직종일수록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았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불구속 위주의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범죄행위자들에게 걸려도 처벌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이상한 기대심리를 갖게 하고 있다.



4. 또 다른 유형의 보험범죄 화재보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화재보험의 계약 건수는 36만 3,402건이고 보험가입금액은 무려 약 434조 원에 이른다. 건물주 또는 세입자의 화재보험 가입이 일반화, 강제화되면서 화재보험 가입자 및 가입금액도 매년 2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화재보험을 통한 보험범죄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실화 건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방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화가 예전에는 보복성, 원한관계, 범죄은닉에 치중되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테러성 전문사기성 방화로 바뀌고 있다.

화재보험 범죄란 보험목적물에 방화하는 등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원인불명의 발화 또는 실화 등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발생한 화재보험 사고에 더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보험범죄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화재보험 범죄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인이 단독으로 행하고 보다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실행한다는 점은 다른 보험범죄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보험범죄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의 이해당사자가 행하는 데 비해,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방화를 실행하는 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등의 보험금 편취 등을 실행하는 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화재보험범죄는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한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또한 과다하게 부풀린다. 그러나 이 경우 여러 개소에서 발화한 흔적이 남게 된다. 또한 종종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비교적 심하게 연소되고 조사자제가 불가능하도록 변형되거나 심하게 파괴되는 특징이 있다.

화재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누전, 폭발 등 화재감식 전문요원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고도로 발전된 보험범죄에 맞설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여 결코 보험범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5. 맺음말

보험범죄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보험범죄에 빠진다고 한다. 모방범죄도 많을 뿐 아니라 적발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보험범죄는 친족살해, 방화, 자해 등 강력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의 피해크기와 가능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발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부분 선진국들이 전문화된 보험범죄 수사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보험범죄 적발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당시부터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험범죄는 가입당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인 보험계약 심사부터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만나는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 모집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모집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고시 보험가입 당시와 비교 확인하여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유추해 내기 위해 무엇보다 피해자, 피해물 관리가 필요하다.

한 신문기자는 보험은 애초에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보험 살인이 영화나 추리 소설의 재미있는 소재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고의 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짓임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저지른다. 그렇다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서 보험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것이다.

보험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다.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해 서로 공동재산을 만들어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정신이다. 단지, 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아름답게 운영해야 한다. 보험범죄는 보험의 공익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빙의(憑依)에 걸린 악마다. 이런 빙의를 줄이는 것이 바로 보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

